

# 스포츠 동아

2020년 5월 8·9일 주말판  
sportsdonga.com 10판



미국 스포츠전문채널 ESPN은 7일(한국시간) NBA 역사상 최고의 농구화 톱74를 선정했다. 1위는 마이클 조던의 농구화인 '에어조던 11(맨 앞)'이 선정됐다. 2위 역시 '에어조던1'이었다. 왼쪽은 사할 오닐의 '샤크노시스'(46위), 오른쪽은 1960~1970년대 각광받았던 '척 테일러'(5위). 사진출처 | ESPN 홈페이지

## '황제'가 신었던 '에어조던11' NBA 역대 최고 농구화 선정

ESPN 톱74 선정... '에어조던1'은 2위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57)은 역대 최고의 선수로 꼽힌다. 그가 착용했던 농구화 '에어 조던' 시리즈도 미국프로농구(NBA) 역사상 최고의 농구화로 선정됐다.

미국 스포츠전문채널 ESPN은 7일(한국시간) NBA 역사에서 최고의 농구화 톱74를 소개했다. 최고의 농구화 1·2위 모두 에어 조던 시리즈의 차지였다. 1위는 '에어 조던11'이 차지했다. 조던은 1995~1996시즌 '에어 조던11'을 착용하고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파이널 MVP를 수상했다. 당시 조던의 소속팀 시카고 불스는 72승10패로 한 시즌 최다승(현재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2015~2016시즌 73승) 기록을 수립했다. 이 농구화는 세월이 흘러 현재는 문화와 패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위는 '에어 조던1'이다. 조던은 NBA에 데뷔하던 1984년 나이키와 계약하고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 때 '에어 조던1'을 착용했다. 당시 NBA 사무국은 선수들이 흰색과 검은색 농구화만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조던은 빨간색 '에어 조던1'을 매 경기 별금을 내가면서 신었다. 별금은 나이키가 대납했다. 이 사건으로 '에어 조던1'은 더 유명세를 탔다. '에어 조던1'은 현재 농구화보다는 스트리트패션 스키커즈로 더 각광받고 있다. 또 '에어 조던3'이 6위에 선정되는 등 10위 안에 에어 조던 시리즈 농구화가 3개나 뽑혔다.

올 1월 헬기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코비 브라이언트의 모델인 '쥘 코비4'와 '하이퍼 덩크(이상 나이키)'가 각각 6위와 10위를 차지했다. 브라이언트의 농구화는 20위 안에 4개나 포함돼 조던 못지않은 영향력을 과시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8일 전북-수원 무관중 개막전...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롤모델 주목

## K리그, 세계 축구의 로망이 되다



코로나19를 뚫고 K리그가 돌아온다.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수원의 K리그 공식 개막전은 17개국에 TV로 중계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사고 있다. 지난해 6월 전주성맞대결 당시 전북 이동국(오른쪽)과 수원 홍철이 어린이들과 함께 입장하는 모습.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 1 코로나19 모범적 극복 세계 유일
- 2 빅리그서 한국 대우 매뉴얼 요청
- 3 17개국 중계...해외무대 쇼케이스
- 4 새 국제룰 적용하는 최초의 나라



이른 더위와 함께 드디어 축구가 돌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막이 무기한 연기됐던 '하나원큐 K리그2 2020'이 8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수원 삼성의 K리그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힘찬 팡파르를 울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24일 제3차 이사회를 열어 새 시즌 K리그1·2의 공식 개막일과 전체 라운드 수, 리그 방식을 결정했다. ▲철저한 방역 조치 ▲우수한 의료 시스템 ▲국민 모두가 참여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고의 노력 덕분에 감염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결과다.

기다림은 길었다. 지난해 12월 8일 부산 아이파크(K리그1 승격)-경남FC(K리그2 강등)의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 이후 5개월여 만에 맞이한 새

시즌이다. 어린이날(5월 5일) 개막을 알린 프로야구 KBO리그와 함께 국내 프로스포츠의 양대산맥이 모두 돌아오게 됐다.

전염병의 완전한 종식이 이뤄지지 않아 무관중으로 첫 걸음을 떼지만, '출발'이란 부분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전 세계 스포츠의 문은 여전히 대부분 닫혀있다. 개막-재개 여부마저 정하지 못한 지역이 많다.

반면 6일을 기점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한 한국은 조만간 관중 입장도 허용될 것이라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바이러스의 무서운 확산에도 불구하고 리그를 강행한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등 일부 국가들이 있지만 K리그는 전혀 다르다. 가장 모범적인 과정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리그를 진행하는 사실상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부러워하고 주요 외신들이 꾸준히 개막 소식을 전하는 K리그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부할 만하다.

코로나19에 관한 K리그 운영 및 대우 매뉴얼은 2015년 설립된 '월드리그포럼'을 통해 40여개 축구리그에 공유됐다.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주요 리그가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조직이 먼저 K리그에 요청해왔다는 점이 놀랍다.

독일 에이전시를 통해 해외 중계권이 성황리에 판매된 K리그는 TV, 온라인, 소셜미디어(SNS)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이스라엘, 세르비아, 중국, 말레이시아, 홍콩 등 17개국 TV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또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영국과 오스트리아 팬들이 K리그를 즐기게 된다. 팬들뿐 아니라 해외출장이 어려운 유럽 빅클럽 스퀘드들의 시선도 쏠릴 것으로 보여 K리그 스타, 유망주들에게는 쇼케이스 무대가 될 수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역시 K리그를 주목한다. 축구경기 룰을 제정한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6월 적용을 목표로 최근 발표한 2020~2021 경기 규칙이 가장 먼저 반영되기 때문이다. 강화된 핸드볼, 오프사이드, 페널티킥 룰을 K리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리그는 앞서 비디오판독(VAR) 시스템도 발 빠르게 도입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제 K리그를 통해 '축구의 봄'이 함께 출발한다.

▶ 관련기사 2면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야구 퀴즈 풀고 1000만원어치 최고급 야구용품 받으세요 ▶ 4면

CJ CHEILJEDANG



미네랄2종  
(아연·구리)

비타민4종  
(A/C/E/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추출물

## 중장년의 침침하고 흐린 눈엔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

눈의 중심부인 황반의 구성 성분 '루테인'과 '지아잔틴'

수정체를 통해 들어온 빛이 상으로 맺히는 부분인 황반은 시상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눈의 중심 부분입니다. 황반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색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화로 인해 황반을 구성하는 색소밀도가 감소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중장년의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로 챙기십시오.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는 식약처 1일 권장섭취량(20mg)을 충족하는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주는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캡슐로 눈 건강과 기초 영양까지 케어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뿐 아니라 기초 영양 케어를 위해 1일 권장량을 100% 충족시키는 비타민 4종(A, C, E, 베타카로틴)과 미네랄 2종(구리,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6개월분 구매 시  
정상가대비 41% 할인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330-9988

